

第2回 北美 滿洲學 國際學術會議 參觀記 (Second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chu Studies)

洪性鳩 경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I

지난 2004년 초여름, 한국과 중국 간에 뜨겁게 전개된 고구려사를 둘러싼 歷史論戰의 결과, 한국에서는 중국의 소위 ‘東北工程’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고구려연구재단’이 발족하였다. 이 연구재단은 고구려사 연구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여러 민족 및 그들이 한국 역사에 미친 영향 등과 같은 문제까지도 연구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동안 학계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북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0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공모한 한중관계사 연구 과제의 하나인 <15~19世紀 中國의 朝鮮認識>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18세기 중국의 조선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¹⁾ 이 연구의 연장으로 필자는, 18세기의 한중관계를 淸朝의 對外政策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18世紀 中國의 對外政策과 朝鮮’이란 주제를 가지고 고구려연구재단 해외파견 연구자의 자격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EALC (Dep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에서 1년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본래 필자의 전공은 중국 명청시대 사회사, 그 중에서도 ‘徽州의 宗族’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라는 분야는 필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역인 셈이었다. 연구자로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던 만큼, 필자 나름의 입장이나 시각이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의 관련 연구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특히 필자를 자극한 것이 근래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東中國海 海上貿易圈’에 관한 연구와 최근 국내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滿洲學會>의 활동이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명청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가 韓-中, 韓-日, 中-日 등과 같이 ‘一國家 對 一國家’의 관계라는 시각에서만 접근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체상에 접근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앞으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는 ‘일국가 대 일국가’의 관계를 넘어서 같은 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 간의 ‘多者關係’의 틀을 확립하고 이를 이론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 필자가 ‘18세기 중국의 대외 관계와 조선’이란 주제를 선택한 것도, 감히 만주를 포함한 北方史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미국에서 북방사에 대한 문외한으로서 ‘18세기 중국의 조선인식’ 논문을 집필하면서, 격동의 17세기와 19세기의 사이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18세기 朝淸關係가 성립되었던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2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1) 이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최근 출판된, 박원호·권인용·홍성구·박정현 공저, 『15-19세기 중국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이다.

역학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필자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제2회 北美 滿洲學 國際學術會議'가 하버드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필자는 정식 등록도 하지 않을 채 회의에 참석하여 유럽과 미국 학계의 만주학 연구에 대해 귀동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귀국 후 우연한 자리에서 이번 만주학 국제학술회의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滿洲學會> 관계자로부터 그 내용을 국내에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적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그 학술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한 멤버도 아니었고, 또한 만주학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관심 이상의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회의를 참관하였다고 하였을 뿐, 그 내용을 남에게 소개할 만큼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목을 굳이 '參觀記'라고 붙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여러 번 망설이고 사양한 끝에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서의 역할만으로 양해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감히 용기를 내어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다보니 문외한으로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이신 만주학회 회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설프고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II

학술회의에 대한 소개에 앞서 미국에서의 만주학 연구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는 편이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번 학술회의는 하버드 대학의 Mark Elliot 교수가 기획하고 주관하였는데, 그가 소개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에서의 만주학 연구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

서구에서의 만주학 연구의 역사는 17·18세기 예수회 선교사(주로 프랑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당시 중국을 통치하고 있던 만주족 통치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필요와 중국 고전의 요체에 접근하는 최선의 통로로서 중국 경전의 만주어 번역본에 주목하였다. 당시로서 이 방법은 만주학 뿐 아니라 중국학에 접근하는 주요한 통로의 하나였다. 19세기에는 언어학자와 문헌학자(주로 프랑스·독일·러시아)들을 중심으로 하여 만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고, 1814년에는 College de France에 처음으로 만주학을 담당하는 교수직이 만들어져 Abel Remusat가 그 자리에 앉았다. 19세기 중반부터는 만주어 문법책과 사전이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1895년에는 영어로 된 만주어 소개가 출판되었다. 하지만 1911년 淸朝가 망하자 만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쇠퇴하였다. 적지 않은 중국학자(Sinologist)들은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중국인 학자들의 견해, 즉 만주인들은 이미 중국화 되었으므로 더 이상 만주의 언어와 역사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20세기 동안 만주학의 전통은 St. Petersburg, Berlin(후에 Bonn), 도쿄의 문헌학자와 역사학자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UC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Indiana University에 만주어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학생수는 극히 적었고, 1980년대초 Joseph Fletcher 아래에서 몇몇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나 거기에도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아주 드문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오랜 동안 대륙과 대만의 역사학자들은 이 분야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만주어가 淸史 연구를 위한 중요한 언어라는 인식과 더불어 중국학 연구에서 민족연구의 전환(Ethnic tum)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非漢族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인류학이 이러한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역사학자들은 Ethnicity, Identity, Nationalism, Chineseness에 관한 논쟁을 진전시켰다. 특히 反滿洲 革命의 도가니 속에서 현대 중국의 민족주의는 불타오르기 시작하였고, 만주의 정체성과 중국의 통치자로서의 만주의 경험은 이 분야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가

2) 이를 포함하여 미국에서의 만주학 연구와 제2회 북미 만주학 국제학술회의에 관한 기본정보는 <http://www.fas.harvard.edu/~marchust/>를 참고.

되었다. 이제 새로운 淸史 연구가 명백한 중국 중심적인 가설의 편견과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 만주학은 그 발전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제2회 북미 만주학 국제학술회의는 이와 같은 미국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지난 2005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Massachusetts州 Cambridge市 소재의 하버드 대학 내 Baker Center, Thompson Room에서 개최되었다.³⁾ 이 학술회의는 하버드 대학 Asia Center의 주관 하에 Harvard-Yenching Institute와 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가 공동 주최하였고, 하버드 대학 EALC와 Committee on Inner Asian and Altaic Studies가 후원하였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의 구성을 보면, 미국의 대학에서 11명, 일본의 대학에서 4명, 중국사회과학원과 中國第一歷史檔案館에서 3명, 독일의 University of Bonn에서 3명,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 각 1명이 참여하였다. 다소 장황하지만 각 발표자와 논문을 소개하기 위해 회의의 프로그램을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⁴⁾

Conference Program

Friday 27 May

9.00 am Registration and Coffee

9.30 am Welcome

Mark Elliott, Mark Schwartz Professor of Chinese and Inner Asian History

Philip Kuhn, Chair,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10.00 am - 12.00 pm Session 1. Manchu Studies: Views of the Field

Chair and Discussant: Tatiana Pang

Manchu Studies vs. Inner Asian Studies

Nicola di Cosmo(Institute for Advanced Study, Princeton)

Manchu Studies in Edo Japan

Kato Naoto (Nihon University)

A Brief History of Manchu Language Study in the United States

Stephen Wadley (Portland State University)

Unexpected Discoveries: What the Manchu Version of a Chinese Text Can Reveal

Giovanni Stary (University of Venice)

12.00 pm Lunch (box lunch provided for participants)

1.00 pm - 3.00 pm Session 2. Manchu Historical Documents

Chair and discussant: Nicola di Cosmo

A Document of Shang Kexi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osoya Yoshio (Tohoku University)

Frontier Administration in the Jiaqing Reign: An Analysis of Memorials from Tarbagatai

3) 제1회 북미 만주학 국제학술회의(First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chu Studies)는 2003년 5월 Oregon주 소재 포트랜드 주립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에서 개최되었다. 포트랜드 주립대학의 Dept. of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에서는 滿洲學 雜誌 『Saksaha』를 발간하고 있다.

4) 이번 학술회의를 안내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fas.harvard.edu/~manchust/Conference.html>에 소개되어 있는 프로그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고에 轉載한 프로그램은 학술회의 당일에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프로그램이다.

Hua Li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Nurhaci's Proclamation to the Ming Dynasty: Problems of Dating and Authorship
Tatiana Pang (Russian Academy of Sciences)

Qianlong's View of the Scholarly Value of the Manchu Language : A Brief Examination
Matthew Mosca (Harvard University)

3.00 pm Coffee break

3.15 pm - 4.15 pm Session 3. Manchu Literature
Chair and discussant: Giovanni Stary

The Inter-generic Transformation of 'Lüyi nü': From Liaozhai zhiyi to Zidishu
Elena Chiu (UCLA)
Who Was Ming Io Pu?
Hoong Teik Toh (Harvard University)

4.30 pm Tour of Harvard campus (optional)
6.30 pm Cocktail reception, Harvard Faculty Club
7:00 pm Dinner, Harvard Faculty Club

Saturday 28 May

9.00 am Coffee

9:30 am - 12:00 pm Session 4. Problems in Manchu History
Chair and discussant: Mark Elliott

Gifted Ladies: The Marriage Draft of Sibe Women, 1700-1701
Loretta Kim (Harvard University)

Manchu Ethnic Consciousness in the 20th Century: The Case of Qingzhou
Ding Yizhua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Unwilling Vassal: The Choson-Manchu Relationship
Evelyn Rawski (University of Pittsburgh)

Civilians Among Beijing's Banner Population
Liu Xiaome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Qing Expansion: The Manchu Factor
Peter Perdue (MIT)

12.00 pm Box Lunch

1.00 pm - 3.30 pm Session 5. Manchu Linguistics
Chair and discussant: Stephen Wadley

Vowel Harmony in Manchu: A Critical Survey
Carsten Naehrer (University of Bonn)

Notes on Manchu Pronunciation

Jerry Norman (University of Washington)

Current Issues in Manchu Linguistics : A Personal Perspective
Michael Weiers and Carsten Naehrer(University of Bonn)

"Gacuha"

James Boss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 New Look at Old Jurchen: The Jin guoyu jie Revisited
Dorothee Kehren and Carsten Naehrer (University of Bonn)

3.30 pm Coffee break

3.45 pm - 5.15 pm Session 6. Manchu Archives
Chair and discussant: Peter Perdue

Overview of Manchu Archives for the History of Qing Xinjiang
Wu Yuanfeng (First Historical Archives of China)

Manchu Materials at Academia Sinica
Nakami Tatsuo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nchu-language Archival Materials in the Harvard- Yenching Library
Mark Elliott (Harvard University)

6.30 pm Dinner, home of Anna and Mark Elliott, Lexington

Sunday 29 May

9.30 am Coffee

10.00 am - 12.00 pm Closing Session

Moderator: Mark Elliott

Open discussion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와 같이 회의는 모두 6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섹션은 기초발표의 성격을 가진 만주학 연구의 개괄, 제2섹션은 만주어 역사자료, 제3섹션은 만주 문학, 제4섹션은 만주 역사, 제5섹션은 만주 언어, 제6섹션은 만주어 檔案을 주제로 하였다. 각 섹션에서 발표된 논문의 요지문은 발표자 각자가 준비한 탕으로 발표 요지문을 전부 채길 수는 없었다. 다만 회의 프로그램 안에 매우 간략한 요약이 실려 있었으므로 참고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요약이 생략된 논문이 더러 있었다. 이하에서는 주로 필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발표자가 제출한 요약문과 필자가 받은 발표 요지문을 참고하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제1섹션에서는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모두 만주학 연구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회고하고 앞으로 이 분야 연구의 거시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기초발표의 성격을 갖는 섹션이었다. Kato Naoto는 일본에서의 만주학 연구의 역사를 정리하였는데, 일본에서의 만주학은 일본과 清朝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만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1804년 일본에 도착한 러시아 외교관들은 러시아어 일본어만이 아니라 만주어로 작성된 신임장을 함께 가져왔다. 이 논문은 왜 당시의 러시아가 극동 외교에서 외교 언어로서 만주어를 사용하였

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주학 잡지 『Saksaha』의 편집장이기도 한 Stephen Wadley는 미국에서의 만주어 연구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 UC Berkeley에서 처음으로 만주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 소위 지역연구(Area studies)가 확산되면서 하버드 대학에 정규 만주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후 Indiana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등에서 만주어 연구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만주어 연구의 배경 하에서 淸史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 배출되어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Giovanni Stary의 논문은 중국 고전의 만주어 번역본의 학문적 유용성 논쟁에 관한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 고전의 이해를 위해 연구되었던 만주어 번역본의 유용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한 만주 문학의 이해를 넓히는 데는 여전히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제2섹션에서도 4편이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만주어로 되어 있는 역사자료에 관한 논문이었다. Hosoya Yoshio는 Harvard-Yenching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尙可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고 Huali(華立)는 天理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塔爾巴哈台奏稿』를 통해서 嘉慶시기 新疆 북부에서의 邊政을 분석하였다. Tiana Pang은 누르하치의 對明 宣言之 날짜와 작성자의 문제를 추적하였다. Matthew Mosca는 乾隆시기 五經의 만주어 번역을 개정하는 작업을 소재로 여기서 발생한 두 가지 문제, 즉 과거 중국인 학자들의 고전에 대한 학문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고전은 만주어 번역으로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건륭제의 주장을 건륭제가 지은 다른 序文들과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제3섹션은 만주 문학에 관한 내용으로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중 Elena Chiu의 논문은 蒲松齡의 『聊齋志異』가 18~19세기 北京 및 東北 지방에서 유행하였던 子弟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였다.

제4섹션은 만주족의 사회사와 국제관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만주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Loretta Kim의 논문은 1700년 12월 淸朝의 戶部에서 동북의 지방정부에 내린, 寡婦와 15세 이상을 포함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Sibe 여성을 조사하라는 명령에 주목하여 이 정책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Ding Yizhuang(定宜庄)은 1911년 이후 滿洲 旗人들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여 淸末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滿洲 旗人들의 거주와 생활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山東 靑州의 駐防八旗를 사례로 선택하여 2002년 4월과 200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旗人의 후손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Evelyn Rawski의 논문은 朝鮮과 淸朝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연히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논문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한국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조선과 청조의 정치적 관계와 조선 내부의 변화를 개론적으로 서술한 데 지나지 않아 적지 않게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발표에서 만주학 연구에서 있어서 연행록과 같은 조선 사료가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조선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혀 두었다. Liu Xiaomeng(劉小萌)은 八旗制度에 의해 지배하는 旗人과 州縣制度에 의해 지배하는 民人(주로 漢人)의 二重支配體制 속에서 旗人과 民人의 관계를 북경의 旗人 사회를 사례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Peter Perdue는 최근 출판한 자신의 저서 China Marches West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5섹션은 만주어에서의 모음조화, 만주어의 발음표기 등 만주 언어학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서구의 만주학 연구의 역사로 보면, 언어학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역사 분야와 더불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섹션에서만 University of Bonn의 세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Carsten Naecher는 3편의 논문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독일의 Bonn이 만주어 연구의 중심지임을 새롭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 제6섹션은 만주 檔案에 관한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Wu Yuanfeng(吳元豐)은 中國第一歷史檔案館이 소장하고 있는 新疆 관련 滿文檔案의 유래와 특징, 종류와 사료적 가치, 현재까지의 정리 상황

등을 소개하였다. Nakami Tatsuo는 2001년부터 臺灣의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주-몽골어 檔案의 재정리 작업을 소개하였다. 中央研究院이 소장하고 있는 滿文檔案은 원래 北京의 紫禁城 안에 있던 內閣大庫의 문서들로 蔣介石 정부가 臺灣으로 철수할 때 함께 옮겨진 것이다. 그는 이 檔案들의 내용과 대륙과 대만에서의 보존 상황, 그리고 中央研究院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주-몽골어 檔案 자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ark Elliot는 Harvard-Yenching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만주-몽골어로 쓰여있는 31종의 檔冊과 200 여종의 문서들을 소개하였다. 이것들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자료들로서 八旗에 관한 행정문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III

이상 제2회 북미 만주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의 프로그램을 보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미국에서의 지역연구(Area studies)는 언어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역사와 문화 및 현재의 변화상까지를 아우르면서 명실상부하게 특정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있으며, 만주학 연구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연구 여건이 미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지만 우리 학계도 주의해서 참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만주’ 지역에 대한 공통의 관심 하에 모여 연구하고 있는 <만주학회>의 활동은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회의를 참관하면서 중국 명청시대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몇 가지 소감을 피력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清代史 연구의 시각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清代史 연구는 중국사 내에서 ‘近世史’ 혹은 ‘明清時代史’로 분류되어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연구자는 주로 明代史에 편중되어 있고, 清代史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清末 이전의 漢族 사회에 대한 연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淸朝가 滿洲族이 통치하는 왕조였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실을 다시 상기하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연구경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20세기 80년대 이전 서구나 중국의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만주족은 이미 漢族化 되었고 만주어도 역시 이미 死語化되었기 때문에 만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조선 후기까지 국가차원에서 만주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던 우리 나라에서 만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만주어 학습의 기회와 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것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파생된 현상일 것이다.

같은 말의 반복이 될지 모르지만, 中國歷史=漢族의 역사로 간주해온 지금까지 중국사 연구자들의 자세도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굳이 연원을 따진다면 이것은 胡亂으로까지 소급되는 朝鮮中華主義(혹은 小中華主義)의 영향에서 현재의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漢族이 스스로를 華로 異民族을 夷로 여겼던 ‘華夷觀’의 그림자 속에서 조선도 스스로를 華의 계승자로 인식하면서 은연중에 滿洲族이 아닌 漢族과 朝鮮을 동일시해 왔고, 그러면서 만주족을 포함한 북방민족과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을 평가절하 혹은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 들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자는 자성과 더불어 일부에서나마 만주 몽골 티벳 위그르 등 淸朝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의 시각과 입장에서 清代史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晚時之歎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역사를 전체 유라시아사상에 위치짓는 작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북아시아 연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상 재구성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할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중국사 연구자들이 조선의 사료에 주목하지 못하였던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중국사 연구의 역사를 돌아보면 70년대 이전까지 주류를 형성했던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조선왕조실록과 朝天錄, 燕行錄類의 자료가 많이 이용되긴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한중관계사라고 하는 한정된 시각에서만 자료를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Evelyn Rawski의 지적을 소개한 바 있지만, 조선의 사료 속에 풍부하게 담겨있는 중국 및 북아시아 여러 민족에 관한 자료는 제3자의 입장에서 중국사와 북아시아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조선 사료의 또 다른 가치에 주목하고, 중국사 나아가서는 북아시아 및 유라시아 역사의 재구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해야만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만난 구미학자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도 그들은 이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조선 사료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한국의 滿洲學界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었다.